

데스크 시각



박 성 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소설 ‘25시’의 루마니아 작가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규(1916~1992)는 시인을 ‘잠수함 속의 토끼’로 비유한 바 있다. 문인들이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유한다는 의미다. 1974년 ‘문학사상’ 주간이자 지금은 고인이 된 이어령의 초청으로 방한했을 당시, 게오르규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독일군 소속으로 잠수함에서 수병생활을 했다. 당시 루마니아는 독일의 동맹국이었다.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때라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산소축정이었다. 동물 가운데 산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토끼가 유용하게 활용됐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토끼는 사람보다 대략 여섯 시간 먼저 죽는다고 알려져 있다.

‘시인은 잠수함 속 토끼 같은 존재’

게오르규는 어느 날 잠수함 속 토끼가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되자 새로운 임무를 맡는다. 계급이 낮으데다 해저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남달랐던 자신에게 토끼와 같은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잠수함 바닥에서 생활하며 산소의 유무를 판별하는 ‘마루타’의 처지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게오르규가 호흡기관 증세를 보이면 잠수함 내부의 산소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은펜칼럼



최 영 태
전남대 명예교수
광주전남비상사국회의 상임대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국가의 명예도 덩달아 실추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윤석열의 계엄령이 시민과 국회에 의해 저지되었으며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칼로 무 베듯이’ 명료하게 구분하여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필자는 지금까지 두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두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이다. 제6공화국 헌법은 3권 분립 및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무총리 등이 헌법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하지는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진영과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대승적 자세로 판결한 결과였다. 이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대답할 차례이

기 고



임 복 희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가들을 존경했던 아버지 덕에 우리 5남매는 모두 바이올린, 피아노, 미술 등을 배웠다. 남매들 중 유일하게 정식으로 바이올린을 전공, 유학을 다녀온 후 전문 연주자로, 교육자로 활동하던 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가에 대해 늘 고민했었다. 2020년 어느 날 고등학교 선배인 흥인화 5·18민중운동기록관장을 만난 건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5·18 다음 세대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던 흥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다. 전공을 살려 ‘음악으로’ 일을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음악은 만국의 언어’이고 어떤 설명 없이도

‘잔인한 4월’을 넘어 ‘희망의 4월’로

‘시인은 잠수함 속 토끼와 같은 존재’라는 게오르규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인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먼저 감지해 위험 신호를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작품으로 구현했다. 옛 소련 체제의 폭압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작품으로 비판했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조선시대 단종을 폐위시키고 권력을 찬탈한 세조에 맞섰던 성삼문 등 사육신들의 기개와 시문은 후세들에게 감동을 준다. 일제강점기 17번이나 옥고를 치르며 39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이육사 시인의 독립운동 의지와 강직한 시혼도 올림을 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그동안 선고 지연과 맞물려 사유와 결과에 대한 무성한 설(說)과 시나리오가 난무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왔다. 접수일 기준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이 걸린 것에 비해 역대 최장 기간이 소요됐다. 그 사이 문인들은 ‘잠수함 속의 토끼’처럼 본능적으로 탄핵 심판이 지연된 때 다른 나름의 날카로운 통찰을 했다. ‘한 줄 성명’을 발표하거나 릴레이 전막농성을 펼치는 등 ‘원고지를 떠나 온몸으로 글을 쓰느’ 결행을 한 것이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소설가를 비롯해 문인 414명은 짧지만 강렬한 문구로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 한강 소설가는 “웨스턴되자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만섭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썼다. 김혜순 시인은 “우리가 전 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이라고 적었으며, 김애란 소설가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여, 대한민국을 보호하소서!

다. 그들도 윤석열 탄핵 문제를 진영과 개인적 성향을 떠나 오로지 상식과 법률적 지식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잘못이었다는 생각은 여야를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도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계엄령을 고만하다가 끝내 선포하지 못했다. 2017년 촛불혁명 때 박근혜는 정권을 내놓을 위기 상황에서도 계엄령 선포를 자제했다. 이 나라에 다시는 1980년 5월의 광주가 겪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일반 국민은 물론이요 심지어 군부까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였다. 그런데 ‘야인 밤중에 흥두께’라는 속담처럼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에 대한 경고용이라는 코미디 같은 말을 남기면서, 시민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엄군이 상부의 명령에 소극적 대처로 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지는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12월 3일 밤 계엄령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얼마나 추락했을지도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리적 내란상태에 처해있는 것이 나 다름없다.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악마화 정치가 그 지지자들에게 확산되면서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켜버렸다. 현재처럼 행정부와 국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3권의 하나인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한 이

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법의 최저선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한국작가회의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온갖 궤변과 거짓, 왜곡으로 시종하는 윤석열은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심판을 지연·회피하고 있다. 졸렬한 행태가 반복될수록 윤석열은 그저 비무한 내란 수괴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우리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주장했다.

4·19혁명 쟁취한 자랑스러운 역사

광주전남작가회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전막농성을 5·18민주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목포작가회의, 순천작가회의, 여수작가회의 등 지역 작가회의도 참여할 만큼 작가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김미송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평온한 일상에 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국민은 그날(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자각 미달인 자가 대통령이 되어 미숙한 판단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결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현재의 선고 당일인 4일에 쏠려 있다. T.S. 엘리엇트는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되는 이 문구는 당초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아픔을 비유한 것이지만 불의와 부조리, 전쟁의 참혹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맞서 4·19혁명을 쟁취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잔인한 4월’이 될지 ‘희망의 4월’이 될지는 전적으로 재판관들 결정에 달려 있다.

社 說

4일 尹 탄핵심판…헌재, 국민 염원 답아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오는 4일을 고지했다. 12·3일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다. 만시지탄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선고기일 지정은 환영 받을 일이다. 현재의 선고기일 지정까지 이번 대통령 탄핵은 기록 경신의 연속이었다.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3배 이상 속고의 기간이 길었다. 그만큼 현재의 고민이 깊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극단화 된 정치 풍토의 영향일 것이라 위안해 본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 탄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명백한 국헌 문란 장면을 모든 국민들이 TV를 통해 지켜봤는데

도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가장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우선으로 선고하겠다는 현재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면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이 원인일 수 있지만 명백한 위헌임에도 일부 극우세력의 극대화 된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선고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에 답해야 할 때다. 인용 결정으로 파면 할 것인지 기각이나 각하로 대통령 직에 복귀 시킬 것인지, 어떤 것이 국민들의 뜻인지는 재판관 모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급락하던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고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장과 국민을 안정시키는 결정을 기대한다.

군부대 이전 민원 붐물…재배치 검토 필요

전남지역에서 군부대의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군부대로 인한 소음 피해 등 주민들이 겪는 직접적인 고통과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자치단체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다. 담양군은 창평면에 있는 예비군사격장 이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981년 들어선 이후 40년 넘도록 소음 피해를 입어왔고 개발제한으로 슬로시티 관광객 유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유탄으로 인근 골짜강 캐디가 머리를 다친 이후에는 안전 문제까지 겹쳐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시는 병승인 항일항거북마리에 주둔하고 있는 31사단 예하 해안경계부대 이전을 위해 전남도의회에서 이전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8년 북한 반잠수정 침투를 계기로 최적의 장소로 확인되는데다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했다며 31사단이 껴먹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성산 정상 of 공군부대도 나누시와 주민들에겐 골칫거리다. 오랜 이전 요구에도 무시하던 부대가 최근에는 신규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대다수 군부대는 수십 년 전에 자리를 잡아 마찰이 없었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개발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만 하더라도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죽동 탄약고 이전이 현안인데 도시 확장에 따라 당장 주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탄약고는 이전을 결정하고 2년 만에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군부대를 무작정 이전할 수는 없지만 국방부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차선의 장소를 찾아 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흘날리는 이벽의 땅/ 어둠 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어/ 봄봄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중략) / 아! 반역의 세월이어, 아! 통곡이 세월이어/ 아!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가수 안치환이 1987년 발표한 민중가요 ‘잠들지 않는 남도’의 노랫말이다. 제주 4·3사건을 담은 노래로 2018년부터 공식 추모곡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산하 시인의 ‘한라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가사에 제주를 상징하는 한라산과 함께 유채꽃이 등장한다. 4·3사건으로 사라진 제주 민중들을 유채꽃으로 의인화한 것이다. 유채꽃은 4·3사건을 다룬 동화책 ‘붉은 유채꽃’에도 나온다. 정도상 작가가 쓴 이 책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4·3사건을 아이들의 눈을 통해 보여준다. 역을하게 희생된 제주도민과 그로 인해 부모

와 집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에 나오는 유채꽃은 평범한 노란 유채꽃이 아니라 강렬한 인상의 붉은 유채꽃이다. 어린아이들이 피에 찢지 않은 유채꽃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매며 노란 꽃을 모아 죽은 이의 얼굴과 가슴을 덮어주는 장면은 마음을 시리게 한다. 이처럼 유채꽃은 한라산과 함께 민족의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제주 4·3사건의 상징물이 됐다. 한데 정작 4·3 관련 단체는 유채꽃보다 동백꽃을 4·3사건을 기리는 상징으로 여기는 듯하다. 동백꽃은 1992년 강요배 화백의 4·3사 꽃이 등장한다. 4·3사건으로 사라진 제주 민중들을 유채꽃으로 의인화한 것이 다. 유채꽃은 4·3사건을 다룬 동화책 ‘붉은 유채꽃’에도 나온다. 정도상 작가가 쓴 이 책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4·3사건을 아이들의 눈을 통해 보여준다. 역을하게 희생된 제주도민과 그로 인해 부모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외 FAX 222-4918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FAX 222-0005)	(FAX 222-0195)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